

코로나19로 답답한 그대여 '비대면 여행' 떠나자

담양·나주·목포·광주 '미디어투어'
다음달 15일까지 무료 시범 운영
역사·문화·인문자원에 IT기술 융합

담양군이 광주·나주·목포시와 손 잡고 비대면 개별여행 프로그램인 '미디어투어'를 진행한다. 20일 담양군에 따르면 4개 지자체는 비대면 개별관광이 특징인 '미디어투어'를 이달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시범 운영한다. 이 기간에는 무료다. 미디어투어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으로 시행하는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중 8권역 '남도맛기행'의 하나로 광주·목포·나주·담양 등 4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각 지역 관광지의 역사·문화·인문 자원과 정보통신(IT) 기술을 융합한 여행 프로그램이다. 미디어투어 체험지는 각 지역 운영 거점에서 가이드 역할을 해줄 태블릿PC를 통해 관광지별 영상과 해설을 제공받으며 여행할 수 있다. 담양은 원도심인 담양읍 담빛길 구간을 2개 코스로 나눠 운영하며 지역 스토리와 수려한 영상이 담긴 태블릿PC를 시청하며 여유로운 도보여행을 즐길 수 있다. 나주는 읍성권역 2개 코스를 운영한다. 역사와 현대문화가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아름다움과 그 속에서 주어지는 힐링여행을 만끽할 수 있다. 목포도 2개 코스로 근대역사관 1·2관이 위치한 근대역사문화거리에서부터 600여 년전 설치된 조선시대 수군기지를 120년 만에 복원한 목포진 역사공원까지 목포만의 특별한 역사와 문화, 예술을

고루 맛볼 수 있다. 신청방법은 미디어투어 홈페이지(www.mediatour.kr)에서 사전예약 후 여행지 코스정보를 확인하면 된다. 미디어투어 업체 ㈜상상오는 코로나19로 인한 휴지기 동안 태블릿PC의 콘텐츠 고도화 작업을 진행해 보다 풍성한 정보와 기능을 업그레이드했다. 개별여행객을 위한 주변 정보가 추가돼 맛집, 카페, 숙박 등 카테고리별 정보와 영상에 담지 못한 소중한 이야기까지 소개하고 있다. 상상오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관광이 필요한 시점에서 미디어투어가 지역관광 활성화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담양=노영찬 기자 nyc@kwangju.co.kr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담양 담빛길, 광주 양림동, 나주 읍성권역, 목포 근대역사거리.

나주지역 5·18민주화운동 생생한 체험 담겨

5·18유공자 나주동지회, 구술집 발간
나주지역 5·18민주화운동의 생생한 체험을 담은 구술집이 발간됐다. 5·18민주유공자 나주동지회는 지난해 6월부터 편찬위원회를 구성해 회원 28명과 당시 나주군청 공무원, 나주경찰서 경찰관, 예비군 중대장 등 총 35명의 인터뷰를 진행, 구술집 '5·18과 나주사람

들'을 발간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책은 40년이 지난 사건에 대해 혼동·착각할 수 있는 구술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해 정수만 전 5·18유족회 회장의 자료와 비교·검토·수정을 거쳤으며, 필요한 경우 각주를 달았다. 안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서문에서 "나주는 5·18민주화운동이 무장항쟁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시민군이 어떻게 전남 서남부지역으로

확산해 나갔는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 곳"이라고 밝혔다. 김기광 5·18민주유공자 나주동지회장은 "이번 구술집 발간을 계기로 항쟁 당시 여성 참여자에 대한 계엄군의 가혹행위, 나주지역 기관대책회의, 사건 조사를 위한 고문과 가혹행위 등 규명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고 강조했다. 전남 서남부지역의 중요한 교통 요충지인 나주



는 5·18항쟁 당시 목포와 영암, 해남 등으로 시민항쟁이 확산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교두보 역할을 했으며, 나주 출신 사망자만 10명이다. 5·18민주유공자 나주동지회는 137명의 회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해마다 5·18민주화운동 기간에는 지역 출신 5·18민주유공자 37위 영령을 위한 분향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벼 농작물 재해보험료 함평군, 90% 지원

작년보다 10%P 확대 지원

함평군은 오는 6월26일까지 벼 농작물 재해보험을 지역농협을 통해 판매한다고 20일 밝혔다.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한 농작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나 화재 등으로 인한 피해발생 시작 농가에 피해 일부를 보상해주는 제도다.

올해 함평군은 벼 농작물 재해보험료의 90%를 지원한다.

지난해까지 80%만 지원했지만 개별 농가의 가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군수 공약에 따라 올해 군비 부담률을 10%포인트 높였다.

가입대상은 벼 재배농업인(임차농 포함) 또는 농업법인이다.

고추, 배, 양파 등 농산물 시설 작물 67개 품목도 재배시기에 따라 가입할 수 있다.

보험가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지역농협 각 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함평군 관계자는 "최근 기상이변에 따른 잦은 자연재해와 병해충 발생 증가로 농업분야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며 "안전한 영농활동을 위해 보험료 지원 비율을 늘린 만큼 지역 농가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함평=황운학 기자 hwang@kwangju.co.kr



장흥군 관계자들이 최근 회진면 대리항에서 어린 감성돔 16만마리를 방류하고 있다. <장흥군 제공>

장흥 대리·수문항에 어린 감성돔 39만마리 방류

연안해역 어족자원 확보

장흥군은 최근 정남진해상낚시공원 인근 회진면 대리항에 어린 감성돔 26만마리를, 안양면 수문항에 13만마리를 방류했다고 20일 밝혔다.

감성돔 방류 행사는 연안해역의 어족자원 확보와 매년 장흥군에서 열리는 전국바다낚시대회 기반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방류된 감성돔 치어는 민간 중요 배양장에서 생산된 5cm 이상의 우량 종묘

다. 감성돔은 내만성 어종으로 수심 40~50m 이하의 해조류가 많은 해역에 주로 서식하는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고소득 품종이다. 장흥군 관계자는 "2007년부터 대하-감성돔-넙치 등 치어를 특량만 해역에 방류해 어가 소득증대에 힘쓰고 있다"며 "풍부한 어족자원 형성과 청정바다 유지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



강진군 관계자들이 군동면 석교리에서 어린 뱀장어 1만9000여마리를 방류하고 있다. <강진군 제공>

강진 탐진강에 뱀장어 1만9000여마리 방류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

강진군은 최근 군동면 석교리 일원에서 기후변화와 남획으로 인해 감소하고 있는 내수면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어린 뱀장어 1만9000여마리를 방류했다고 20일 밝혔다.

강진군은 내-해수면 어족자원 조성 및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매년 수산종자 방류 사업을 하고 있다. 방류한 뱀장어는 유전자 검사와 수산생물 전염

병 검사를 마친 전장 10cm 이상의 건강한 치어다. 3~4년 후 경제적 가치가 있는 크기로 성장하면 내수면 어업인들의 큰 소득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뱀장어는 강이나 하천에서 성장해 산란기 때 바다로 내려가는 강하성 어종으로, 가을철 태평양 인근 수심 200~300m의 바다로 이동해 봄부터 여름까지 산란을 한다. 부화한 실뱀장어는 약 6개월 간 바다에서 자란 뒤 강이나 하천으로 올라와 성어로 성장한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인터넷 광주일보

www.kwangju.co.kr

당신의 로망은 어떤곳 인가요?
친환경 목조주택을 지어드립니다

목조주택 설계·시공 전문기업
우드빌더스(주) 휴인(주) 문의상담 062) 945-0036~7

모던 스타일 Modern

클래식 스타일 Classic

지중해 스타일 Mediterranean Sea